

2004.02.05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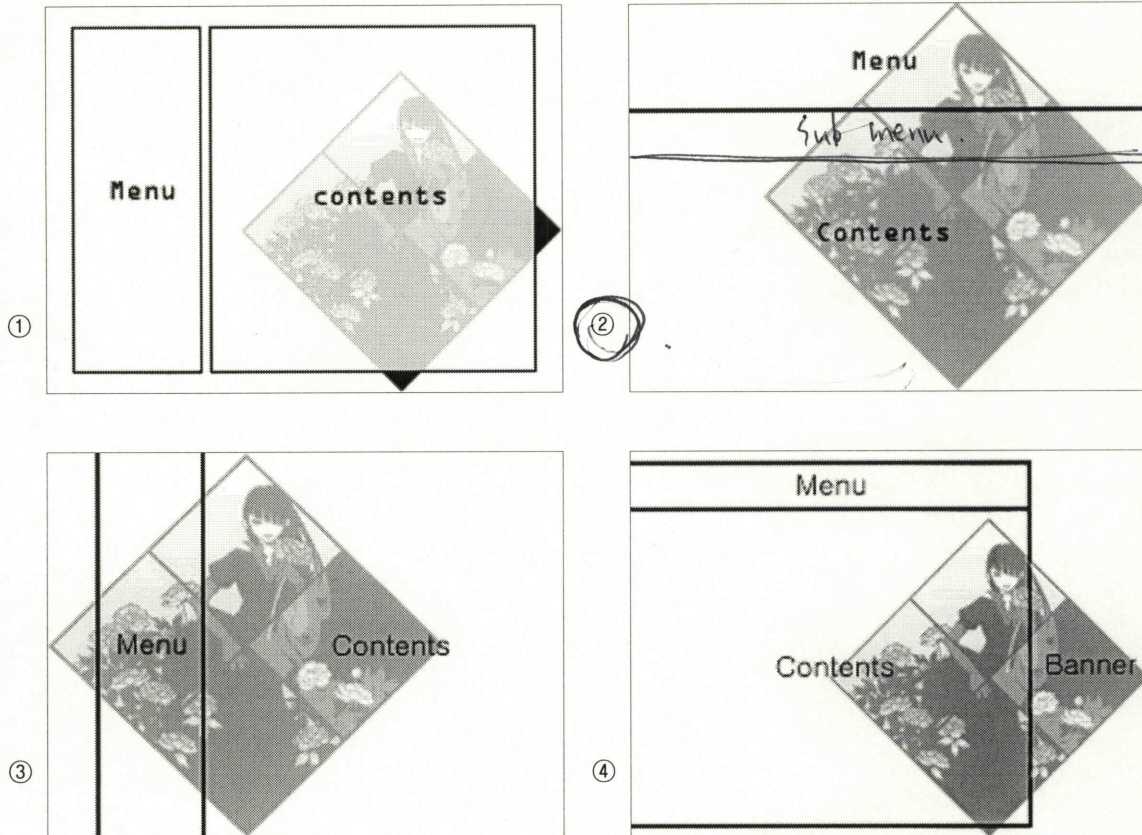
♥ 홈페이지 2차 회의 ♥

발신 : 자페로부터

수신 : 움펄툼 집행부에게

▲ 홈페이지 디테일 관련

- 홈페이지 디자인 : 투표 & 추가 혹은 수정 혹은 삭제를 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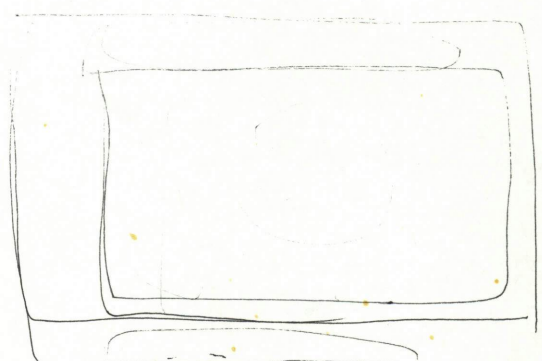
- 메인 이미지 컨셉 결정

- 메인 칼라 결정 : 기초색? 보라? 주황?

투구사.

▲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

▲ 기타



총여학생회는 왜 필요한가요?

“총여학생회는 왜 있어요?” “총남학생회는 없는데...”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처음 접하게 되면 누구나 한번쯤 제기해볼만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왜 필요한지, 또 여성주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17대 총여학생회는 왜 여성주의를 안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내 여학생비율은 이제 4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내 여학우의 수적 증가 역시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기존의 학생회를 담보해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강의시간 중 교수님이 “자네는 낮에 졸고, 밤업소 나가나?”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새터에서 남자선배가 FM 혹은 술을 집요하게 권할 때에,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학내에 마땅히 신고할 곳이 없을 때에, 이러한 불편에 대한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기존의 학생회는 수행하지 못했던 거죠.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변하며,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도우며, 여학우들에게 불편한 학내 문화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 일상에 만연한 성별화된 폭력적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여성주의는 무엇인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성주의라는 말 안에는 너무나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으니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 인식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이념 정도로의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는 여성주의가 안고 있는 그 풍부하고도 깊은 함의들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곧 ‘성차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여자는 일단 예쁘고 봐야지’라는 식의 말을 듣고 자라게 되는 사회에서, 이 언어는 상식 혹은 상식 이전의 감수성으로 몸에 배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별 위계화 된 채로 정상화되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예민한 성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들어온 이 말이, 여성이 스스로 타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힘들니다.

여성주의의 힘은 행복과 불편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여성주의를 통해 기존의 설명할 수 없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온,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온 답답함을 명쾌히 정의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외칠 수 있는 해방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별위계의 구조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제도, 법률, 윤리, 세계관 할 것 없이 일상의 전 영역에 관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회에서의 여성주의 감수성은 삶의 매 순간을 성찰해내고 매 순간과 싸워야 하는 불편을 우리에게 안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에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되어오던 것들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힘. 그것은 세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인가요?

캠퍼스가 여전히 여학우들에게 불편한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먼저 ‘여성’이라는 단어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여성/남성으로 이분된 생물학적 의미 뿐 아니라 오랜 가부장제에서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위치에 있어왔다는 결코 작지 않은 함의 또한 ‘여성’이라는 단어는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함의를 인식할 때에 여성에게 불편하게 남아 있는 공간들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요.

17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를 지향합니다.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회구조가 어떠한 불평등함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불평등하게 작용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회구조를 인식함은 단순히 여성에게 ‘잃어버린 권력’을 되돌려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으며 남성 기준으로 형성되어온 사회구조와 문화 자체가 그 스스로 전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구조가 너무나 일상적인 듯이 강요되고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캠퍼스는 여전히 여학우들에게 불편한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가 여성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 성차별적인 학내 공동체 문화에 비판을 가함으로써 캠퍼스를 보다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함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의 모색은 학내 공동체에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가부장적 문화를 전복시키는 일은 캠퍼스만의 문제로 해결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 그 자체에 함입되어온 인식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7대 총여학생회는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온 가부장적 문화 역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의 학생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여학생들의 다양한 욕망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한편,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구조를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 강제하는 사회 전반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17대 총여학생회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틈은 올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응하기 못함!

가장 먼저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틈

나는 여성주의자이다.

언젠가부터 나를 표현하는 말 속에 여성주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사실 처음엔 조금 멋모르고 시작한 말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나의 경험에 스며들어있던, 그러나 미처 알지 못했던 힘들. 나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큰 소리치고, 설득하고, 때론 비웃어버리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차별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양성쓰기를 하고 있는 나의 네 글자 이름을 소개할 때,

남성 중심의 문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규범들의 이유를 거칠게 되물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성차별적인 언론의 기사들을 꼭꼭 씹어가며 대화할 때,

심지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 생활에 대한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할 때조차,

나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어디선가 흘러들었을 뿐, 자신의 경험이라곤 손톱만큼도 섞이지 않은 여성주의에 대한 질문을 쏟아 붓는 사람들,

내가 입을 열고 대답하는 것보다 나의 침묵을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눈치를 보거나,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나는 때론 장황하게 설명하고, 때론 입을 다문다.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그다지 흔치 않지만, 때론 즐겁지 않아도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면 누군가가 또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계속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 것을 종용하는 사회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 균열은 메워야 할 흠집이 아니라, 무한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상상과 성장의 원천이다.

여성주의 안에서 여성은 사회의 전복 가능성을 말할 줄 알고, 또한 들을 줄 아는 따스한 전율의 틈새가 된다. 성찰의 온기와 소통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사회의 틈, 그 틈 안에서 펼쳐지는 자유롭고 유쾌한 이야기들이 여성주의의 물결을 차오르게 하고, 물결의 차오름은 또 다른 틈을 만들어 낸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 이 사회의 틈이라는 것은 그래서 멋진 일이다.

여성주의는 오늘도 나의 일상에 얹힌 사슬을 끊어내고, 내가 원하는 풍부한 색깔로 나를 입혀내는 언어이며, 나를 끝없이 새롭게 움트게 하는 힘이다. 여성주의의 물결 안에서 내 안의 움튼을 막는 가부장적 담론은 기꺼이 거부되고 그 힘을 잃는다. 여성주의의 물결 속에서 움트고 펼치는 유쾌한 세상의 틈. 나는 기꺼이 틈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여성주의자이다.

공약정리

움.

여성주의의 씩, 띄우고 키우다 - 여성의 언어 공유하기

1. 여성주의 내공쌓기

페미니티리 활성화 : 여성주의 자치 도서관인 페미니티리를 운영하여, 학내 커리큘럼에서 접하기 어려운 여성학을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학 학고 : 여성학 세미나와 강연을 통하여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여성의 언어로 풀어내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2. 여성의 목소리 담아내기

온라인 공간 활성화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알려내고 여자만의 방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의 일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주의 매체 발간 :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일상의 권력을 짚어내는 목소리를 전하는 여성주의 매체를 발간하겠습니다.

3. 여성주의 활동 지원

자치단체 지원 : 학내 여성주의 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특별지원금 : 학내 여성주의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펼.

Play in Feminism! 여성주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유쾌하고 발랄한 일상 만들기

1. 페미니즘 캠프

무더운 여름 방학,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는 페미니즘 캠프를 열겠습니다.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내 안의 Fenergy (Feminism + Energy)를 충전시키는 기회를 만나보세요.

2. 문화제

섹슈얼리티 문화제 : 가부장적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유쾌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제 : 현재 학내에서는 여성들이 기분 좋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학생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3. 한 달에 한 번 여자친구 만나기

한 달에 한 번씩 학내 여학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연 등을 마련하여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 여학생 수첩 발간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여학생 수첩을 만들겠습니다.

5. 복지와 시설 개선

여학생의 체육 환경 개선 : 여학생들의 편리한 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관 내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을 개선하겠습니다.

틈.

Empower with you! 가부장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여성의 힘

1. 새로운 흐름의 반성폭력 운동

여성을 연약한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담론을 뛰어 넘어 여성 스스로를 긍정하고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 단위 연대 구성 : 2004년까지 학내 반성폭력 활동을 위한 단대 학생회 연대체인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연성뿌연)가 운영되었습니다. 기존 연성뿌연의 한계점 (단대 학생회들의 관성적 참여)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학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고민을 실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 반, 동아리 등 자치단체 연대로 확장하여 재구성하겠습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로 인해 드러나기 어려운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학내에서 이슈화시키고 경각심을 불러넣을 수 있는 수업 모니터링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학칙 개정 홍보 : 2004년 개정된 반성폭력 학칙의 내용과 의의를 알리고 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정되지 않은 교수 성폭력 관련 학칙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사건 해결 및 피해자 지원 : 학내 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교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지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2. 여성주의 연대활동 알려내고 함께 하기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 다름으로 닮은 여성 연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등 여성주의 단체와 연대하여 여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학내에서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6대 홈페이지

反성폭력

: 학칙 / 새터 내규 / 가해자 실명공개의 원칙 / 가해자 인권의 문제 /
왜 '피해자 중심주의'인가 / 공동체를 위한 화해 / 성폭력 신고절차 안내

*16대 아이들이 직접 씀

17대 홈페이지

이슈 > 反성폭력

- 학칙
- 개정된 학칙전문
 - 학칙운동 과정-제정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왜 개정을 해야 했으며 개정으로 인해 바뀐 것이 무엇인지
 -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한계점 지적, 더욱 보완되어야 할 부분

교수성폭력 (소책자에 들어갈 내용을 추려서 쓰게 될 듯)

- 교수성폭력 운동사
- 교수성폭력 무엇이 문제인지 / 왜 어려운지
- 교성절연 / 다른 대학에서의 움직임 소개
- 2005년 교수성폭력 캠페인에 대해서

새터내규

- 내규 전문
- 내규의 의미 - 자치규약이라는 것을 강조.
- 새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 (반을 중심으로) 자치규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사례가 있으면 제시.

16대에 있던 글을 검토해서 다시 올려도 좋을 듯 / 좀 어렵다면 쉽게 옮겨서.

더 보낼 수 있는 내용 : 성폭력, 당위와 담론에서 벗어나기 합리적 여성을 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

sub main.

홈페이지 글

16대 反성폭력 메뉴

- * 反성폭력 학칙
- * 새터내규
- * 가해자 실명공개의 원칙
- * 가해자 인권의 문제
- * 왜 '피해자 중심주의'인가
- * 공동체를 위한 화해
- * 성폭력 신고절차 안내

→글 좋음. 다시 사용해도 괜찮을 듯 / 그러나 조금 어려움.

17대 이슈> 反성폭력 메뉴

- * 反성폭력 학칙 - 제정안과 개정안 / 어떤 과정을 거쳐 바뀌었는지 / 무엇이 바뀌었는지

- * 새터내규 - 역시 제정안과 개정안 모두 / 여연자연 잠깐 소개?
/ 새터 자료집에 있는 유용한 글들과 만화 업로드

- * 대학 문화를 바탕으로 짚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
-과반동아리등 학내 공동체: 놀이문화 술자리문화

- * 성적 자기결정권

*

- * 가해자 실명공개의 원칙
- * 가해자 인권의 문제
- * 왜 '피해자 중심주의'인가
- * 공동체를 위한 화해

- * 성폭력 신고절차 안내

반성폭력 학칙개정

16대 총학생회에서 가장 주력했던 사업. 2000년에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없음에 대해 지적하는 활동도 함께 전개했고, 4월에는 비민주적인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500의 학생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반성폭력 학칙은 학생 측에서 낸 개정안대로 개정되어 2005년 2월 현재 시행 중이다.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연성뿌연)

총학생회와 단대 자치단위에서 反성폭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연대체입니다.

She Said

연세대학교 안에서의 여성의 이야기, 연세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 쉬운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를 섬세한 언어로, 그리고 깊은 언어로 풀어내는 여성주의 매체를 발행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알찬 내용의 고정칼럼과 기획, 특집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학생 수첩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과 깔끔한 다이어리가 함께 담겨있는 여학생 수첩이 발행되었다.

여성학 학교(3/9~4/1)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반성매매, 반성폭력, 여성의 몸, 남성시선 등의 다양한 주제로 주 2회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학내 여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의 언어를 쌓아갈 수 있었다.

3.8 여성의 날 행사

중도 앞 광장에서 자보전 등의 행사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및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여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캠퍼스 비상전화 설치 요구

2004년 5월말부터 진행되어 학내 7곳에 비상전화가 설치되었다.

섹슈얼리티 문화제(5/11~13)

<Face! Women's Desire-여성,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다>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여성의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즐겁게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막제로는 중도 앞 민주광장에서 <Mosaic Harmony> 조각 그림 색칠하기가 있었고,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영화 상영, 여성주의 미술워크숍 '욕망을 그리다' 등이 열렸다. 포럼으로는 '유령의 세계에서 온 소녀들 :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소녀, 그 불안정한 발달함과 전복 가능성에 대하여', '4명의 여인들의 연애 이야기 - 그녀들이 월담한 이유는? : Lifestyle로서의 다양한 sexuality 실천에 관한 페미니스트 포럼' 이 열렸다.

여성제(2004.9.20~22)

소녀유람

첫째날 <여성, 폭력에 대항하다>

개막제 : 여성에게 폭력없는 공간이란!

강연 <범죄와 여성인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인간이 아닌가(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권김현영) + 사라진 여성들 상영

둘째날 <여성의 일상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피자대 연대와 함께 하는 '나에게 꼭 맞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워크샵'

강연 '가족주의를 넘어서 가족 구성의 권리(장애여성 공감 운영회원 타리) + 거북이 시스템즈 상영

셋째날 <여성문화 다시보기>

Play Again! 주옥같은 그녀들의 목소리 다시 듣기 뮤직샹송 + 여량의 타로점

강연 여성이 문화창조자로 선다는 것은 (문화평론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김영옥)

연대활동

새움터 (새활, 연대장터)

교성절연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3.8 여성의 날 포럼 자활 및 참여)

메이데이 여/생 (대학 여운단위 연대로 기획단 꾸림)

달빛시위 (전국성폭력상담소연합 주최)

Image.